

순천 10대 여성 살해범 광주·전남 첫 머그샷 공개

범인 식별용 사진

전남경찰 '30세 박대성' 신상공개
실물과 다른 증명사진 공개 비판
1월 법 개정으로 얼굴 강제 촬영
경찰 홈페이지 마비 전국적 관심
"최신사진 꾸준히 갱신해 공개를"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
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
진)가 공개됐다.

전남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에 대한 신상공
개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7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는 이날 3시간 동안 심의를 거
쳐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중대범죄신상공개
법' (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
한다고 판단해 박대성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해당 신상정보는 오는 10월 29일까지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결정은 중대범죄신
상공개법을 제정·시행한 1월 이후 광주·
전남 첫 사례다.

● "실물과 다른 얼굴 사진" 비판 수용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
상공개제도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피의자 신상공
개제도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을 공
개하는 제도다.

신상공개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 사진을 공
개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을 공개해야 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상



< 좌측 사진 >

< 정면 사진 >

< 우측 사진 >

성명 : 박 대 성

나이 : 30세

전남경찰이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박대성(30)의 머그샷을 공개했다.

전남경찰 제공

적으로 신분증 사진이나 증명사진이 공개
됐다. 이에 촬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
나 화장이나 포토샵 보정 등이 적용된 증
명사진이 공개되곤 했다.

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
유정의 증명사진을 경찰이 공개했을 때
'실물과 달라 동창들도 알아보지 못했다'
는 반응이 있었다. '신당역 스톱킹 살해
범' 전주환도 실물과 다르다는 의견이 빗
발쳤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피의자의 동
의 없이 머그샷 촬영이 불가능하기에 생
긴 일이었다. 실제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도 머그샷 촬영과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한 수사기관이 중
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이 제정됐고,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
을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의자의 얼
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박씨 사진은 범죄자 인상
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머그샷이다.

●10대 청소년 살해, 박대성은 누구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43분께 순
천시 조례동 한 주차장에서 A양(17)을
흉기로 찔러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북 경주에서 3개월 전 순천으로 이주
한 박씨는 한 프랜차이즈 찜닭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비관적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수차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던 그는 25일 밤부터 소주를 마신 뒤
26일 자정이 됐을 때 주방용 흉기를 쥔
길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12시40분께 A
양의 뒤를 800m가량 뒤쫓아 범행을 저질
렀다.

박씨는 범행 후에도 오전 3시께 술에 취
해 길거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의 인상착의
를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체포됐다.

순천경찰은 지난달 27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광주지법 순천지
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소주 4병을 마셨다. 피해자와는 아는 사

이가 아니다"고 말했다. 범행을 부인하는
나는 질문에는 "증거는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박씨
는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
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A양이 서로 일면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묻지마 살인', '계획
범죄'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두고 통신 내
역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
한 동기와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 박대성 신상공개에 전국적 관심 집중

박대성의 범행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
면서 그의 신상이 공개된 30일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남경찰청 홈페이
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박씨가 운영하던 식
당 온라인 리뷰창에는 '살인자', '평생 손
가락질 받고 고통 속에 살라라', '너도 나
중에 밤에 거리 나서게 무서운 날이 오
게 될 거다'는 등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일부 시민은 식당 주변에 계란이나 이물
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특히 박대성의 과거사진이나 보정이 들
어간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이 공개됐지
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지는 못하겠다는 목소리다.

순천에서 옷가게를 운영 중인 한영선
(53)씨는 "(박대성이)신상공개 된 사진
을 보고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이구나 싶
고 지금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출소하게 된다면 순천에 계속 거
주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꾸준히 최신 사진으로
갱신해서 공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
다.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서구장애인체육회 임금체불 발생

급여일 앞두고 운영비 확인 안해 지도자 6명 월급 하루 늦어져

광주 서구 소속 공공기관인 '광주 서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장애인체
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9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서구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
자는 시 소속 2명, 서구 소속 6명 등 총 8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서구 소속 6명
은 기존 임금 지급일인 25일보다 하루 늦
은 26일 임금을 받았다.

해당 지도자들의 급여는 기금 50%, 시
비 25%, 구비 25%로 매칭돼 지급되며,
서구는 체육회에 분기별로 인건비와 운영
자금 등이 포함된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
다.

다만 국비와 시비에서 하달되는비용이
분기별로 상이한 탓에 금액이 부족한 경
우 구비에서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비
가 지급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 지급일은 매
달 25일이지만, 서구 장애인 체육회 담당
자는 시 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23
일 인지했고, 임금 지급일 당일인 25일 교
부시스템에 교부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
났다.

담당 부서인 서구청 체육관광과는 이

사실을 24일 오후에 확인하고 25일 교부
결정을 진행, 26일야 6명의 서구 소속
지도자들의 임금 총 1557만원을 구비로
마련했다.

해당 지도자들에게는 지급 당일인 25
일 오후 3시30분께 단체 공지방을 통해
임금이 미뤄진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최근 새로운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사회적 책무
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부터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진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서
구 장애인 체육회만 이러한 일이 생겼다"
며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 기조가 이어지
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체불이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구 관계자는 "체육회 운영 비용
이 분기별로 상이하고, 운영 비용을 매번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 체육회에서 요
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했다"며
"운영비가 부족하면 사전에 요청할 수 있
도록 체육회에 언급했으나 2분기 때 비용
이 기존보다 더 많이 교부돼 체육회에서
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것 같다. 인건비가 원활하게 지연되도
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상이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광주 '뺑소니범' 일당 추가 범죄 연루 의혹... '조 선생'은 누구?

대포차 유통 등 범죄 조력 가능성

경찰이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고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운전
자와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

광주 서부경찰은 '뺑소니 사망사고 마
세라티 운전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
를 받는 김모(32)씨와 그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A·B·C씨, 광주·전남에 '조 선생'
으로 알려진 D(54)씨의 추가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
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광
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법인 명의의 수
입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
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
치고 동승자 2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지인에게 마세라티 차량을 빌린 김씨는
사고 당일인 24일 오전 2시부터 1시간여
동안 광주 서구 한 술집에서 지인 A·B씨
와 술을 마셨다.

이후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의 술집으
로 이동하기 위해 A씨는 벤츠를, 김씨는
B씨를 태운 채 마세라티를 몰았으며 운전
을 하던 중 앞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의 차량을 타고 B씨와
함께 대전으로 올라간 김씨는 A씨가 끊

어진 오전 9시3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리무진버스를 이용해 인천국제
공항으로 향했다. 김씨가 공항으로 향하
는 사이 A씨는 김씨의 비행기 티켓을 취
소했고, 이를 알지 못한 김씨는 공항에 도
착했으나 출국이 금지됐을 가능성에 스스
로 항공권을 포기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늦은 오후 서울로 이
동하면서 또 다른 조력자인 고교 동창 C
(32)씨에게 연락해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C씨가 구해준 대포폰을
이용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
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사고
67시간여만인 26일 서울 강남에서 김씨
와 C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사건 연루자 4명은 광주·전
남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동창생, 동네 선
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김씨는 수차례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4년 이후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과거 광주 북구 일대에서 거주했
으나 주소지가 불명확한 탓에 행정당국이
지난 2일 김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말소
하고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이관했다.

가명을 사용하던 김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주로 거주했던 태국
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도운 조력자 A·B·C씨
도 범죄은닉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

이다.

이들은 모두 무직이라고 진술했으나 이
들이 수시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를 오간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씨의 SNS
에는 태국에서 호화롭게 생활하던 모습과
광주 무등산 일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게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대부분은 사기 등 혐의로 수차
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
다.

김씨가 몰던 외제차에 대한 조사도 이
어진다.

김씨가 해당 차량을 몰게 된 계기, 서울
소재 법인 소유 차량이 광주까지 오게 된
이유 등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
만 해당 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D씨 대상
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불법적인 사
업을 하거나 본인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 선생', '조 박
사'로 불리는 사람으로 서울에서 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마세라티를 계약한
뒤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위
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현재 광주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한 음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김씨와 조
력자들에게 대한 추가 범죄 연루 여부도 조
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민원기·정상이 기자